

한·일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교과서의 어휘 분포 연구*

-한·일 초등학교생의 어휘 비교를 통하여-

李美淑** · 宋正植***

〈요지〉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교과서의 '어휘분포(Lexical meaning)'의 유의차(有意差)를 통해 양국의 사회상 및 가치관의 차이를 밝히고 가장 유의차가 높게 나타난 의미 범주를, 해당 국어교과서로 학습한 양국의 초등학교 3학년생의 어휘 사용과 비교함으로써 교과서 어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교과서에는 개별어에서 일본의 1.33배, 전체어에서 1.49배에 이르는 어휘가 사용되었는데, 양국의 교과서 어휘를 『分類語彙表』(1964)에 의해 4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개별어에서는 유의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양국의 1-2학년 국어교과서는 어휘 분포에 있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어에서는 13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발생했는데, 한국교과서는 이중 <1.20われ・なれ・かれ><1.25公私><1.52宇宙・空><1.37納得> 등, 6개 항목에서 높고 일본은 <1.56動物><1.55生物><1.17空間・場所> 등, 7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높았다. 분석 결과, 한국은 '사람, 자신, 타인', '국가와 지역' 관련 용어가 많이 등장하여, 상대적으로 인물 및 가족, 민족을 소중히 하고 '우리'라는 집단意識이 강하며 충효를 소중히 하는 사회상 및 가치관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양케트를 통해 양국의 학생들의 어휘사용으로부터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은 경제관념, 경쟁, 노력과 보상이라는 가치관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은 인물보다는 동·식물과 소재 및 도구를 중시하고, 시간적·공간적 인식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특정 가치보다는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생활양식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를 통하여 양국 교과서에 나타난 사회상 및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교과서가 학생들의 어휘사용 및 나아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문분야 : 어휘론

키 워 드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분류어휘표, 어휘분포, 가치관

1. 연구 목적

나라마다 '국어' 및 '국어교과서'의 의미(意義)가 다르지만, '국어교과서'에는 그 나라와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상 및 가치관이 담기기 마련이며, 이는 '삽화'를 비롯한 '어휘', '텍스트(본문)' 등을 통하여 표출된다.

李 외(2012), 李(2013)¹⁾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삽화'에 주목하여, 삽화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²⁾ 본고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1-2학년 국어교과서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A-A00112).”

** 명지대학교 교수, 대조언어학

***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어휘론(교신저자)

1) 분류기준 조정으로 李 외(2012)와 수치가 미세하게 달라졌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같다.

2) 2011년 현재,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1-2학년 국어교과서는 2009년, 일본은 2011년에 개정된

(이하,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에 주목하여, 양국의 교과서의 ‘어휘 분포(Lexical distribution)’의 유의차(有意差)를 통해 양국의 사회상 및 가치관의 차이를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양국의 교과서 어휘에서 가장 유의차가 높게 나타난 의미 범주와 관련하여, 해당 국어교과서로 학습한 양국의 초등학교 3학년생의 어휘 사용과 비교함으로써, 교과서 어휘와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동기 및 방법

2.1 삽화와 어휘와의 관련

李 외(2012), 李(2013)에서 양국의 교과서에 사용된 삽화를 양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1.3배로, 삽화가 사용된 쪽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텍스트(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학습효과를 겨냥한 장식성 삽화가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일본은 양적으로 적으나, 쪽 전체를 삽화에 할애한 예가 많고 대부분 텍스트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위의 논문에서 밝힌 양국의 1-2학년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주인공의 선호 경향 및 삽화에 등장한 인물의 직업에 나타난 성차(性差), 국가 이데올로기, 사회적 가치덕목, 전통 및 이문화(異文化)에 초점을 맞춘 질적(質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삽화의 주인공에서 한국은 ‘인물’의 비중이 높은 반면(한국46.7%, 일본 30.6%), 일본은 ‘동물’의 비중이 압도적 높았고(한국12.6%, 일본29.7%), ‘자연물’(한국6.1%, 일본8.5%), ‘설명자료’(한국10.0%, 일본13.0%)에서도 한국보다 높았다. 즉, 양국 간에 삽화 주인공의 선호 경향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어휘 및 텍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한국은 텍스트 내용과는 관련없는, 학습효과를 겨냥한 장식성 삽화(8%)가 사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 2) 삽화의 등장인물의 ‘직업’을 통해 ‘성차’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국 모두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는 더욱 제한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직업인으로 묘사된 경우도 한국은 남성이 여성의 15배, 일본은 12.5배에 이를 정도로 성차가 있었고, 가정에서의 남녀역할에 있어서도 양국 모두 성평등(性平等)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1-2학년에서는 양국 모두 ‘국가 이데올로기’ 및 ‘가치덕목’이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 ‘가족이 함께 등장하는 삽화가 일본의 2.7배이고 전통 민화에 충(忠)·효(孝)와 관련된 삽화가 많으며, 주인공 자신이 윗형제로 설정되어 있어, 가족 및 형제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는 이른바 유교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나타났다.
- 4) ‘전통’ 관련 삽화는 한국이 많으며, ‘이문화’ 관련 삽화는 일본이 높는데, 이는 3)과 관련이 있다.

이상과 같은 교과서 ‘삽화’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하,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2.2 교과서 어휘의 의미 분포 대조

양국의 교과서에 등장한 어휘를 의미 분야별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조사대상은 앞서 李 외(2012), 李

(2013)의 삽화연구와 동일한 교과서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 1) 양국의 1-2학년 교과서의 어휘를 동일한 조건으로 추출 후, 텍스트파일로 만든다.
- 2)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分類語彙表』(1964)에 근거하여 추출된 단어에 의미별 단어코드를 붙인 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대분류(5개 항목)는 물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중항목으로 분류한다(43개 항목). (한국 교과서의 어휘는 일본어로 번역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류한다.)
- 3)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계학의 카이제곱검정(自乘檢定)을 이용하여 유의차를 대조하여, 양국의 사회상 및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삽화의 분석결과 및 초등학교 3학년생의 어휘사용과 대조한다.

2.3 초등학생의 어휘에 나타난 의미 분포 대조

학생들의 언어생활과 교과서에서 나타난 가치관과의 연관을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작업이나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일 간에 가장 유의차가 높게 나타난 범주를 표본대상으로 하여, 해당 교과서로 학습한 초등학생의 어휘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양케트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 1) 유의차가 높게 나타난 범주의 어휘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이를 자신의 모어(母語)인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설명하도록 한다.
- 2) 피실험자는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습한 학생으로, 양국의 수도권과 지방, 각 3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한국 : 서울, 경기도(수원), 강원도(영주) 소재 3개교, 총 100명(남 50, 여 50)
 - 일본 : 도쿄(東京), 나고야시(名古屋市), 고치현(高知県) 소재 3개교, 총 135명(남 65, 여 70)
- 3) 기간은 2011년 개정된 교과서의 학습이 끝난 시점인 2013년 1월에서 4월에 걸쳐 실시하되, 양케트를 회수 후, 외국생활 경험자 등을 배제한 후(기초조사란 활용),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전문 그대로 엑셀에 입력하여 분석한다.

3. 양국의 국어교과서 어휘의 의미 분포 대조

3.1 개별어수와 전체어수

일반적으로, 어휘를 어휘·문법적 의미에 의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등으로 나누는데, 어휘적 의미에 있어 사회상 및 가치관이 가장 드러나는 것은 '명사'이므로, 본고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1-2학년을 통틀어 사용된 명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개별어수'와 이들이 사용된 총 빈도를 나타내는 '전체어수'는 <표1>과 같다.

〈표1〉 한·일 1-2학년 국어교과서에서 나타난 명사의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

	개별어수		전체어수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2학년 통합	1,204어	908어	4,681어	3,149어

개별어수는 한국이 일본의 1.33배, 전체어수는 한국이 일본의 1.49배에 해당하여, 한국이 상대적으로 개별 어휘 사용이 많으며, 더불어 한 단어의 사용빈도도 평균 3.89회로, 일본의 3.47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어휘에 한정하여 본다면 한국교과서의 학습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2 대분류에 나타난 어휘분포의 유의차

교과서 어휘의 의미 분포상의 특징은 그 나라의 사회상 및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과서의 어휘에 나타나는 의미 분포에 나타난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해 『分類語彙表』(1964)를 근거로 하여 의미코드를 붙이고 의미코드별 비중 및 고빈도 어휘를 분석한다.

‘분류어휘표’란 ‘단어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세계를 분류하여 그 분류항목에 단어를 배당한 것’(『分類語彙表』(1964); 1)으로, 본 절에서는 어휘를 <1.1추상적 관계><1.2인간활동의 주체><1.3인간활동-정신 및 행위><1.4생산물 및 도구><1.5자연물 및 자연현상> 등, 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여 분석한다.

먼저, 〈표2〉는 개별어와 전체어의 대분류이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99% 이상의 확률로 유의차가 나타난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2〉 한·일 1-2학년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명사의 대분류 및 카이제곱값()안은 비율

코드	의미 분야	개별어수		카이 제곱값	전체어수		카이 제곱값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1.1	추상적 관계	200(16.6)	200(22.0)	9.874	774(16.5)	679(21.6)	31.481
1.2	인간활동의주체	268(22.3)	147(16.2)	12.064	1,437(30.7)	634(20.1)	108.014
1.3	인간활동-정신 및 행위	186(15.4)	114(12.6)	3.547	546(11.7)	363(11.5)	0.034
1.4	생산물 및 도구	203(16.9)	161(17.7)	0.273	563(12.0)	399(12.7)	0.722
1.5	자연물 및 자연 현상	347(28.8)	286(31.5)	1.763	1,361(29.1)	1,074(34.1)	22.236
총 계		1,204(100)	908(100)	-	4,681(100)	3,149(100)	-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어 및 전체어 모두, <1.1추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분야에서는 일본 쪽이 유의차가 높게 나타났고, <1.2인간활동의 주체>에서는 한국 쪽이 높게 나타났다. 단, 개별어수 보다는 전체어수에서 유의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5자연물 및 자연현상>항목은 전체어수에서 일본교과서가 유의차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3.3에서는 43개 중항목으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3.3 중항목 분류에 나타난 의미 분포의 유의차

앞의 대분류를 43개 항목으로 세분한 것이 <표3>이다. 역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99% 이상의 확률로 유의차가 나타난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3> 한·일 1-2학년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명사의 중항목 분류 및 카이제곱값(()안은 비율)

코드	의미 분야	개별어수		카이 제곱값	전체어수		카이 제곱값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1.10	こそあど	13(1.1)	8(0.9)	0.200	45(1.0)	56(1.8)	9.863
1.11	類·例	5(0.4)	4(0.4)	0.066	13(0.3)	5(0.2)	1.156
1.12	有無	2(0.2)	3(0.3)	0.565	2(0.04)	3(0.1)	0.806
1.13	様相	4(0.3)	6(0.7)	1.160	33(0.7)	31(1.0)	1.810
1.14	力	2(0.2)	2(0.2)	0.070	17(0.4)	3(0.1)	5.293
1.15	作用	11(0.9)	8(0.9)	0.005	19(0.4)	10(0.3)	0.396
1.16	位置·地位	67(5.6)	78(8.6)	7.392	285(6.1)	287(9.1)	2.445
1.17	空間·場所	51(4.2)	53(5.8)	2.821	214(4.6)	209(6.6)	15.710
1.18	形·型·姿	17(1.4)	15(1.7)	0.194	59(1.3)	33(1.0)	0.730
1.19	量	28(2.3)	23(2.5)	0.091	87(1.9)	42(1.3)	3.197
1.20	われ·なれ·かれ	53(4.4)	30(3.3)	1.642	562(12.0)	207(6.6)	62.724
1.21	家族	35(2.9)	22(2.4)	0.455	201(4.3)	134(4.3)	0.007
1.22	相手·仲間	8(0.7)	9(1.0)	0.677	50(1.1)	30(1.0)	0.247
1.23	人種·民族	114(9.5)	59(6.5)	6.059	340(7.3)	185(5.9)	5.800
1.24	成員·職	14(1.2)	10(1.1)	0.015	78(1.7)	33(1.0)	5.146
1.25	公私	26(2.2)	7(0.8)	6.455	148(3.2)	23(0.7)	52.083
1.26	社会	16(1.3)	9(1.0)	0.494	55(1.2)	21(0.7)	5.051
1.27	機關	1(0.1)	0(0.0)	0.689	2(0.04)	0	1.329
1.28	同盟·団体	1(0.1)	1(0.1)	0.030	1(0.02)	1(0.3)	0.076
1.30	心	54(4.5)	45(5.0)	0.253	178(3.8)	113(3.6)	0.241
1.31	言動	29(2.4)	26(2.9)	0.415	127(2.7)	124(3.9)	9.096
1.32	創作·著述	13(1.1)	5(0.6)	1.691	52(1.1)	42(1.3)	0.787
1.33	文化·歴史	39(3.2)	22(2.4)	1.219	83(1.8)	46(1.5)	1.131
1.34	義務	7(0.6)	3(0.3)	0.672	9(0.2)	5(0.2)	0.116
1.35	交わり	8(0.7)	4(0.4)	0.445	14(0.3)	5(0.2)	1.525
1.36	支配·政治	12(1.0)	1(0.1)	6.596	23(0.5)	2(0.6)	10.813
1.37	納得	11(0.9)	2(0.2)	4.025	37(0.8)	3(0.1)	17.886
1.38	仕事	13(1.1)	6(0.7)	1.001	23(0.5)	23(0.7)	1.838
1.40	物品	5(0.4)	5(0.6)	0.191	29(0.6)	8(0.3)	5.339
1.41	素材	14(1.2)	24(2.6)	6.389	36(0.8)	47(1.5)	9.388
1.42	衣料·錦	22(1.8)	14(1.5)	0.245	61(1.3)	37(1.2)	0.249

1.43	食料	25(2.1)	22(2.4)	0.272	79(1.7)	35(1.1)	4.352
1.44	住居	32(2.7)	32(2.7)	0.334	64(1.4)	60(1.9)	3.494
1.45	道具	71(5.9)	44(4.8)	1.103	177(3.9)	160(5.1)	7.718
1.46	灯火	17(1.4)	10(1.1)	0.387	52(1.1)	25(0.8)	1.939
1.47	地類	17(1.4)	14(1.5)	0.057	65(1.4)	27(0.9)	4.570
1.50	刺激	26(2.2)	25(2.8)	0.765	102(2.2)	55(1.7)	1.789
1.51	自然·物体	45(3.7)	28(3.1)	0.656	158(3.4)	102(3.2)	0.108
1.52	宇宙·空	42(3.5)	21(2.3)	2.457	239(5.1)	98(3.1)	18.162
1.55	生物	68(5.6)	81(8.9)	8.437	177(3.8)	226(7.2)	44.456
1.56	動物	94(7.8)	91(10.0)	3.166	380(8.1)	443(14.1)	70.850
1.57	体	64(5.3)	34(3.7)	2.874	281(6.0)	130(4.1)	13.299
1.58	生命	8(0.7)	8(0.9)	0.312	24(0.5)	20(0.6)	0.503
총 계		1204(100)	908(100)	-	4681(100)	3149(100)	-

개별어수에서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1.16位置·地位><1.55生物>의 두 항목에 불과하여 양국의 1-2학년은 어휘 분포에 있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두 항목 모두 일본이 절대적인 어휘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비율은 물론, 어휘 수에서도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동·식물 등이 자연 및 시간적·공간적 인식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

전체어수에서는 13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발생했으며, 이중 한국교과서는 <1.20われ·なれ·かれ>의 경우 카이제곱값이 62.7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5公私><1.52宇宙·空><1.37納得><1.57体><1.36支配·政治>순으로 6개 항목에서 어휘수도 많고 카이제곱값이 10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일본교과서는 <1.56動物>의 경우 카이제곱값이 70.85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55生物><1.17空間·場所><1.10こそあど><1.41素材><1.31言動><1.45道具>순으로 7개 항목에서 한국교과서에 비해 유의차가 높았다. 단, 이중 카이제곱값이 10 이상인 항목은 3개 항목이었다.

이하, 3.4에서 유의차가 10 이상 높게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4 한국교과서가 유의차가 높은 항목 분석

전체어수에서 한국교과서가 일본교과서에 비해 유의차가 10 이상 높게 나타난 <1.20われ·なれ·かれ>를 비롯한 6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20われ·なれ·かれ>(카이제곱값 : 62.724)

<표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교과서는 대분류에서 <1.2인간활동의 주체>항목에서 유의차가 높게 나타났는데, 중항목 분류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자신·타인’ 등을 나타내는 <1.20>항목에서는 개별어수에 있어 한국이 일본의 1.8배에 이르고, 전체어수에서도 2.7배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한

3) 일본교과서에서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주어진 환경에 순종적인 인격을 만드는 침투하기 쉬운 이데올로기 장치(ソフトなイデオロギ-装置)로서 기능한다는 비판이 있다(石原2005, 2009a).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텍스트연구를 다루고자 하나, 삽화나 어휘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하다.

단어의 평균 사용빈도가 10.6회에 이르는 반면, 일본은 평균 6.9회 정도였다. 즉 한국교과서가 개별어수 전체 어수 모두 높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빈도 또한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0われ・なれ・かれ〉 항목에 속한 한국과 일본교과서의 어휘

한국(개별어수 53, 전체어수 562)	일본(개별어수 30, 전체어수 207)
우리(78), 나(85), 내(83), 사람들(40), 사람(27), 할머니(20), 자기(15), 저(13), 누구(13), 제(13), 네(13), 아이(12), 너(11), 영감(11), 아무(10), 누가(10), 할아버지(9), 아기(8), 너희(8), 어린이(7), 녀석(6), 아이들(5), 꼬마(5), 솔래(5), 여러분(5), 할망(4), 어린이들(4), 여자아이(3), 노인(3), 주인공(3), 코흘리개(3), 이들(3), 남(3), 이놈(2), 저희(2), 놈(2), 어른들(2), 도련님(2), 젊은이(2), 애들(2)……	ぼく(40), だれ(30), わたし(29), ひと(27), じぶん(14), きみ(13), おに(13), おかちゃん(11), おまえ(3), ぼくだち(3), あなた(2), わたしたち(2), こどもだち(2), しょうねん(2)……

*()안의 숫자는 개별어의 사용빈도임(이하 동일)

한국교과서는 2회 이상 사용된 경우가 40어나 되지만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14어로 현저하게 적었다. 특히 한국교과서의 경우는 ‘우리’라는 단어가 78회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어서 1인칭에 해당하는 ‘나·내·저·저희’의 사용빈도가 183회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어의 경우도 1인칭에 해당하는 ‘ぼく’은 40회 사용예가 있지만, 한국어 ‘우리’에 해당하는 ‘ぼくだち’와 ‘わたしたち’를 합쳐도 5회에 그쳐,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일본이 집단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우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사용양상은 예상과는 달라, 흥미로운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1.20〉항목을 통하여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물 중심이며, 특히 ‘우리’라는 집단 의식을 중요시하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1.25公私〉(카이자승값 : 52.083)

국가와 지역 등과 관련된 〈1.25〉항목의 경우 한국교과서는 개별어수가 26어이고 전체어수가 148어로, 한 단어의 평균 사용빈도는 5.7회이다. 한편 일본교과서는 개별어수가 7어 전체어수가 23어로, 한 단어의 평균 사용빈도는 3.3회였다. 개별어수에 있어 한국교과서가 일본교과서의 3.7배에 이르고 전체어수에서의 사용양상은 6.4배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5公私〉 항목에 속한 한국과 일본교과서의 어휘

한국(개별어수 26, 전체어수 148)	일본(개별어수 7, 전체어수 23)
집(49), 마을(21), 독도(11), 별나라(11), 나라(10), 우리나라(6), 고을(5), 제주도(5), 까막나라(4), 서울(3), 울릉도(3), 그리스(2), 우산국(2), 시골(2), 동네(2), 독섬(2)……	うち(9), まち(4), モンゴル(4), くに(2), むら(2)……

2회 이상 사용된 경우가 한국교과서는 16어나 되지만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5어에 불과하여, 현저하게 적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과서가 일본교과서에 비해 ‘우리나라(6)’를 비롯하여 ‘집·마을·나라’와 관련된 어휘나 ‘독도(11)·제주도(5)·서울(3)·울릉도(2)’⁴ 등 자국의 지역을 가리키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충(忠)이라는 가치덕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1.52宇宙·空>(카이자승값 : 18.162)

<1.52>항목의 경우, 한국교과서는 개별어수가 42어이고 전체어수 239어로 한 단어의 평균 사용빈도는 5.7회이다. 한편, 일본은 개별어수 21어, 전체어수 98어로 평균 4.6회가 사용되었다. 개별어수에 있어 한국교과서가 일본교과서의 2배에 이르고, 전체어수에서의 사용양상도 2.4배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2宇宙·空〉 항목에 속한 한국과 일본교과서의 어휘

한국(개별어수 42, 전체어수 239)	일본(개별어수 21, 전체어수 98)
해(28), 달(25), 산(19), 바다(19), 웅달샘(16), 지구(13), 우주(11), 호수(9), 햇님(8), 산꼭대기(8), 개천(6), 숲(5), 태산(5), 백두산(4), 섬(4), 바닷가(4), 샘물(4), 별(3), 강(3), 경치(3), 풍경(2), 돌(2), 들(2), 육지(2), 금강산(2), 하늘(2)……	かわ(18), そら(17), つき(10), くさはら(10), やま(9), おひさま(7), うみ(6), たき(3), ゆうひ(2), はやし(2), のはら(2)……

한국의 경우는 ‘해(28)·달(25)·산(19)·바다(19)·웅달샘(16)’ 등의 어휘가 15회 이상 사용되어 고빈도어로 조사된 반면, 일본의 경우는 ‘かわ(18)’와 ‘そら(17)’ 2어만이 1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로,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다. 단, 일본은 ‘おひさま(7)·ゆうひ(2)·たいよう(1)·あさひ(1)’ 등, ‘해’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상은 이러한 연구가 양국의 외국어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본어휘 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4) <1.37納得>(카이자승값 : 17.886)

<1.37>항목의 경우, 한국교과서는 ‘선물(10)·값(6)·내기(6)·잡기(2)·돈(1)·대출(1)’ 등, 개별어수가 11어이고 전체어수는 37어였다. 반면, 일본은 개별어가 ‘みずやり(2)·かいもの(1)’ 등, 단 2어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어수 역시 3어에 그쳤다. 한국의 경우, 1-2학년 학생들에게 경제관념, 경쟁, 노력 및 보상이라는 가치관을 직·간접적으로 갖게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5) <1.57体>(카이자승값 : 13.239)

<1.57>항목의 경우, 한국교과서는 개별어수 64어, 전체어수 281어로, 개별어수 34어, 전체어수 130어인 일본에 비해 2배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단, 한국은 인간과 관련된 ‘발(22)·눈(20)·이(17)·얼굴(16)·몸(13)’ 등이 고빈도 어휘인데 비해, 일본은 인간과 관련된 ‘かお(10)·からだ(10)·て(10)’ 외에 ‘くちばし(11)·わたげ(7)·しっぽ(5)·たまご(4)’와 같이 동물에 한정된 어휘가 대량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앞서 한국이 <1.20われ・なれ・かれ>(1.25公私)에서 유의차가 높고 일본은 <1.56動物>에서 유의차가 높은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즉, 한국은 인물중심, 일본은 동·식물 등, 자연물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4) ‘독도·울릉도’ 등은 고유지명으로 <1.25>로 분류하였으나 ‘백두산·섬’ 등은 우주·자연으로 보아 <1.52>로 분류함.

6) <1.36支配·政治>(카이지승값 : 10.813)

<1.36>항목에서는 한국은 ‘상(4)·도움(4)·별(2)·응원(2)’ 등 개별어수 12어, 전체어수 23어가 사용되었는데, 일본은 ‘お礼’ 라는 1어가 2회 사용되는데 그쳤다. 이는 앞서 <1.37納得>의 결과와 같이, 경쟁, 노력 및 보상이라는 가치관을 직·간접적으로 갖게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3.5 일본교과서가 유의차가 높은 항목 분석

<표2>와 같이, 일본교과서가 한국교과서에 비해 유의차가 10 이상 높게 나타난 <1.56動物><1.55生物><1.17空間·場所> 등, 3개 항목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56動物>(카이지승값 : 70.850)

<표2>의 대분류에서 일본교과서가 <1.5자연물 및 자연현상>항목에서 유의차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항목 분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동물·곤충·물고기등을 포함하는 <1.56>항목의 경우, 한국교과서는 개별어수가 94어이고 전체어수 380어로 한 단어의 평균 사용빈도는 4.1회이다. 한편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가 91어 전체어수는 443어로 평균 4.9회 사용되었다. 즉 일본교과서의 경우 절대적 수치가 적은 상태에서 ‘동물’과 관련해서는 개별어수도 한국교과서와 비슷하고, 전체어수는 60여개나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6動物> 항목에 속한 한국과 일본교과서의 어휘

한국(개별어수 94, 전체어수 380)	일본(개별어수 91, 전체어수 443)
호랑이(37), 불개(23), 고래(14), 동물(11), 고양이(11), 황소아저씨(11), 개구리(11), 코끼리(10), 개미(10), 누렁소(9), 두꺼비(9), 어름치(9), 메뚜기(8), 코뿔소(8), 바둑이(7), 동물들(6), 강아지(6), 잠자리(6), 토끼(5), 황소(5), 생쥐(5), 방아깨비(5), 진딧물(5), 지렁이(5), 소시랑개(5), 생쥐(4), 바둑이(4), 꿩(4), 새(4), 거북할아버지(4), 멸치(4), 노루(3), 손뽕(3), 개미들(3), 생쥐들(3), 아기곰(3), 여우(3), 하마(2), 너구리(2), 사자(2), 현무(2), 배불뚝이(2), 누렁소(2), 원숭이(2), 오리(2), 까마귀(2), 타조(2), 새끼새(2), 제비(2), 학들(2), 멸치들(2), 호랑나비(2)……	きつねのこ(45), しろうま(39), ねこ(32), かまくん(21), かえるくん(19), さかな(19), くまのこ(18), うさぎのこ(17), いぬ(13), どうぶつ(11), うま(11), こぶた(11), たぬき(10), とり(7), かたつむりくん(7), とり(7), ひつじ(6), せみ(5), ねずみ(5), おおかみ(5), パンダ(5), ライオン(4), きつねくん(4), きつね(4), ことり(4), てんとうむし(4), ばった(4), くまさん(3), どうぶつだち(3), ペンギン(3), がまがえるくん(3), わに(3), さかなたち(3), しまうま(3), いのしし(3), こねこ(2), さる(2), さるくん(2), いきもの(2), うし(2), おさる(2), おうむ(2), きつつき(2), こうま(2), たぬきのこ(2), ぞう(2), ぞうさん(2), にほんざる(2), はちどり(2), さば(2), たい(2), まぐろ(2), だんごむし(2), むし(2), かたつむり(2), ざりがに(2)……

고빈도어의 사용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교과서의 경우는 ‘호랑이(37)·불개(23)·고래(14)·동물(11)·고양이(11)·황소아저씨(11)·개구리(11)’ 등이 상위어인데 반하여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きつねのこ(45)·しろうま(39)·ねこ(32)·かまくん(21)·かえるくん(19)·さかな(19)·くまのこ(18)·うさぎのこ(17)·いぬ(13)·

どうぶつ(11)·うま(11)·ぶた(11)’ 등의 단어들이 상위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여우’에 해당하는 단어는 ‘きつねのこ(45)·きつね(4)·きつねくん(4)’이 무려 53회나 사용된 반면 한국은 3회에 불과하였고, 한국은 ‘호랑이’가 37회 사용된 반면 일본은 1회에 불과하였다. 양국 모두 ‘고양이(11)’와 ‘ねこ(32)’ 그리고 ‘개구리(11) ‘かえるくん(19)’ 등과 같은 동일어가 고빈도어에 속해 있는 것 외에는 매우 다른 사용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이러한 연구가 양국의 외국어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본어휘 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1.55生物>(카이자승값 : 44.456)

<1.55>항목의 경우 한국교과서는 개별어수가 68어이고 전체어수 177어로 한 단어의 평균 사용빈도는 2.6회이다. 한편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 81어 전체어수 226어로, 평균 사용빈도는 2.8회 사용되었다. 일본교과서가 개별어수 전체어수 모두 높고 사용빈도도 높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5生物> 항목에 속한 한국과 일본교과서의 어휘

한국(개별어수 68, 전체어수 177)	일본(개별어수 81, 전체어수 226)
나무(21), 꽃(11), 고구마(9), 장생초(9), 산딸기(8), 들꽃(8), 풀잎(5), 나뭇잎(4), 씨앗(4), 치자(3), 제비꽃(3), 굴(3), 흥시(3), 민들레씨(3) 열매(3), 단풍잎(3), 식물(2), 약초(2), 오이(2), 소나무(2), 가시(2), 새싹들(2), 가지(2)……	はな(28), き(23), かぶ(17), み(14), たね(9), たんぼぼ(8), コスモス(7), ふきのとう(6), おはな(6), ミカン(5), バナナ(4), ミニトマト(3), なのはな(3), はっぱ(3), くさ(3), やさい(3), コスモスさん(2), さくら(2), トマト(2), なずな(2), ひまわり(2), ぶどう(2), まめ(2), もも(2), レタス(2), えだ(2), おちば(2), つぼみ(2)……

2회 이상 사용된 단어 수는 한국교과서가 23어인데 비해, 일본교과서는 28어로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단어들을 보면 사용 빈도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교과서의 경우는 ‘나무(21)·꽃(11)’ 등이 고빈도어이고, 일본교과서도 이와 유사하게 ‘はな(28)·き(23)’가 고빈도어로 사용되고 있어 양국 교과서 모두 비슷한 사용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1.17空間·場所>(카이자승값 : 15.710)

<1.17>항목의 경우, 한국교과서는 개별어수가 51어이고 전체어수 214어로 한 단어의 평균 사용빈도는 4.2회이다. 한편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 53어 전체어수는 209어로 평균 사용빈도는 3.9회였다. 이하,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7空間·場所> 항목에 속한 한국과 일본교과서의 어휘

한국(개별어수 51, 전체어수 214)	일본(개별어수 53, 전체어수 209)
어디(22), 앞(15), 속(14), 여기(14), 위(14), 안(11), 뒤(10), 자리(8), 밑(8), 밖(6), 옆(6), 멀리(6), 왼쪽	なか(36), うえ(18), した(15), そと(11), あいだ(10), そこ(9), どこ(9), そば(9), みぎ(6), さき(6), あたり

(5), 아래(5), 주변(5), 길가(4), 가까이(3), 저기(3), 여기저기(3), 남쪽(3), 사이(3), 중(2), 이웃집(2), 강 바닥(2), 품(2), 너머(2), 바닷속(2), 구석구석(2), 한 가운데(2), 저리(2), 이리(2)……	(6), とおく(6), じめん(5), まえ(4), ここ(4), となり (3), やまおく(3), とおく(3), まわり(3), むこう(3), こちら(2), うしろ(2), すいちゅう(2)……
--	---

위에 제시된 단어를 살펴보면 한국교과서의 경우는 ‘어디(22)·앞(15)·속(14)·여기(14)·위(14)·안(11)·뒤(10)’ 등의 단어가 10회상 사용된 고빈도어이고,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なか(36)·うえ(18)·した(15)·そと(11)·あいだ(10)’ 등의 단어가 고빈도로 조사되었다. 양국 교과서 모두 비슷한 사용양상으로 위치표현에 해당하는 단어가 빈도수 상위어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유의차는 10 이하이지만, 일본이 <1.10こそあど>(1.41素材)<1.31言動>(1.45道具) 등의 항목에서 유의차가 높다는 것은 동·식물 등 자연물 뿐 아니라, 소재 및 도구를 중요시하며 경쟁 등 특정가치보다는 사회속에서 지켜야할 기본 생활양식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양국의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어휘사용 대조

본 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습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어수에서 유의차가 높았던 <1.20われ・なれ・かれ>(카이자승값 62.724)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그림(컬러)을 제시하여 자신의 모어로 ‘그림에 등장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써달라’는 양케트를 실시하였다. 컬러로 제시하였는데, 등장인물의 머리색이 여성은 검정, 남성은 밤색, 두 아이는 옐로우색에 가깝다. 이처럼 머리색을 다양하게 한 이유는 특정 민족으로 제한하지 않고 객관화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 참고로, 옷이나 주변 모두 밝은 느낌을 준다.



<그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림)

이하, 양국의 초등학교생의 양케트 결과를 원문 그대로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a)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이 날씨가 좋아 나들이를 나왔다. (남1) ⁵⁾ (b) 가족 나들이, 엄마, 아빠, 아이들이 모인 가족이 재밌게 나들이를 갔다. (남25) (c) 소풍을 하고 있다. (남50) (d) 가족들과 소풍가면서 즐거워 보여요. 가족과 여행가는 것이예요. (여1) (e) 가족, 나들이, 엄마, 아빠, 아이들이 모여 즐겁게 나들이를 한다. (여25) (f) 가족이랑 화목해 보인다. (여50)
일본	(a) 男がはんそで、女そでなし、女の子がだっこされている。(남1) (b) 人が、はなしていると思う。手をつないでいる。(남25) (c) この人たちははなしてる。(남50) (d) 家族だと思う。楽しそう。なかよしそう。(여1) (e) 家族なかよし。(여25) (f) みんな夏でたのしそうだなあと思います(여50)

4.1 주인공을 가족으로 표현하는가? 제3자로 표현하는가?

먼저, <그림>의 등장인물을 가족으로 묘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이 날씨가 좋아 나들이를 나왔다.'나 일본 '(d) 家族だと思う。楽しそう。なかよしそう(가족이라 생각한다. 즐거워보인다. 사이좋은 것 같다).'와 같이 가족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한 경우와 한국 '(c) 소풍을 하고 있다.'와 같이 이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일본 '(a) 男がはんそで、女そでなし、女の子がだっこされている(남자는 반소매이고, 여자는 민소매, 여자아이가 안겨있다).'와 같이, 가족을 가리키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초등학생은 '가족'으로 묘사한 경우가 100명중 68명으로, 68%에 이르는데 반해, 일본의 초등학생은 135명중 63명으로, 46.7%에 그쳤다. 즉, 한국 학생들은 '가족', '우리'라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일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가족', '우리'라는 인식보다는 '사람', '남자', '여자'라는 객관화된 시각을 가지고 제3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한국이 가족으로 보고 설명한 경우가 높는데 비해, 일본은 제 3자로 객관화하여 묘사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서의 삽화 및 어휘의 분석 결과와 깊은 연관이 있다.

더구나 앞서 제시한 <그림>과 같이 주인공이 키가 크고, 다양한 머리색을 취한 이유가 '우리', 또는 '가족'을 떠나 객관화시키려는 의도였으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은 '우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묘사하는데 반해, 일본 학생들은 '사람·남자·여자'로 객관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 학생 중 3명은 '외국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학생 중 2명은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으로 표현하였고 '외국인'이라는 어휘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 역시 양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4.2 대분류에서 나타난 의미 분포의 차이

양케트에 사용된 피실험자의 표현에서 다음과 같이, 명사만을 추출한 후, '분류어휘표'에 근거하여 <표4>와 같이 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참고로, <그림>을 설명하는데 한국은 1인당 3.2개의 어휘를 사용하였고 일본은 2.1개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5) 번호는 무작위로 작성한 일련번호임.

한국 (a)의 경우 : 아버지/어머니/동생/형/남씨/니들이 (6개 어휘 추출)

일본 (a)의 경우 : 男/はんそで/女/そでなし/女の子/だっこ (6개 어휘 추출)

〈표4〉 한·일 3학년 학생들의 사용 어휘 대분류()안은 전체 어휘중의 비율임)

코드	의미 분야	개별어수		전체어수	
		한국어(비율)	일본어(비율)	한국어(비율)	일본어(비율)
1.1	추상적 관계	8(9.0)	7(11.1)	17(4.0)	17(8.0)
1.2	인간활동의 주체	33(37.1)	27(42.9)	255(59.3)	122(57.3)
1.3	인간활동-정신 및 행위	14(15.7)	13(20.6)	90(20.9)	45(21.1)
1.4	생산물 및 도구	13(14.6)	8(12.7)	25(5.8)	13(6.1)
1.5	자연물 및 자연현상	21(23.6)	8(12.7)	43(10.0)	16(7.5)
총 계		89(100)	63(100)	430(100)	213(100)

〈표3〉에서 전체어수에서 가장 유의차가 높았던 〈1.20われ・なれ・かれ〉(카이제곱값 62.724)를 검증하고자 제시한 양케트로, ‘그림에 등장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써 달라’는 제한된 설명을 요구되는 양케트이므로, 유의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의 어휘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1.2인간활동의 주체〉였다. 〈표5〉는 이를 중항목으로 세분한 것이다.

〈표5〉 한·일 3학년 학생들의 사용 어휘 중분류()안은 전체 어휘중의 비율임)

코드	의미 분야	개별어수		전체어수	
		한국어(비율)	일본어(비율)	한국어(비율)	일본어(비율)
1.20	われ・なれ・かれ	12(13.5)	11(17.5)	77(17.9)	32(15.0)
1.21	家族	16(18.0)	11(17.5)	163(37.9)	71(33.3)
1.22	相手・仲間	3(3.4)	2(3.2)	13(3.0)	14(6.6)
1.23	人種・民族	0	2(3.2)	0	4(1.9)
1.24	成員・職	0	0	0	0
1.25	公私	2(2.2)	1(1.6)	2(0.5)	1(0.5)
1.26	社会	0	0	0	0
1.27	機關	0	0	0	0
1.28	同盟・団体	0	0	0	0

양국 모두 〈1.2인간활동의 주체〉중에서도 〈1.20われ・なれ・かれ〉〈1.21家族〉항목에 어휘사용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이 많았고, 특히 전체어수에서 차이가 컸다. 이하, 두 항목에 사용된 어휘를 분석하기로 한다.

1) 〈1.20われ・なれ・かれ〉

한국(개별어수 12, 전체어수 77)	일본(개별어수 11, 전체어수 32)
사람(20), 사람들(13), 아이(11), 아기(9), 우리(7), 아이들(5), 나(3), 남자아이(3), 어린이(2), 천사(2), 여자아이, 누가	人(10), 女の子(5), 女の人(4), 男の人(3), 赤ちゃん(2), 男(2), 女(2), 人たち, 男子, 男の子, 女性

전체어수에 있어 한국이 일본의 2.4배로, 한국은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교과서의 삽화 및 앞서 3장의 어휘연구 결과와 같다. 한국의 경우는 ‘사람(20)·사람들(13)·아이(11)·아기(9)·우리(7)·아이들(5)·나(3)’가 고빈도어이고, 일본의 경우는 ‘人(10)·女の人(4)·男の人(3)’와 같은 단어들 이 고빈도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7)·나(3)’와 같이, 집단 및 1인칭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일로 표현하는 특징이 보이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어휘가 없었다.

2) 〈1.21家族〉

한국(개별어수 16, 전체어수 179)	일본(개별어수 11, 전체어수 71)
가족(68), 엄마(31),아빠(27), 동생(9), 어머니(4), 아버지(4), 형(4), 아들(4), 가정(3), 오빠(2), 형제(2), 4인가족, 부모님, 언니,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家族(54), 兄弟(3), 子供(3), 4人家族(3), おとうさん(2), おかあさん, ママ, パパ, おにいちゃん, いもうと, 親子

한·일간의 특징이 큰 항목으로, 한국이 개별어수에서 1.5배, 전체어수에서 2.5배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남성을 ‘아버지’라 표현한 단어가 31어에 이르는 반면, 일본은 이에 해당하는 어휘가 3어에 지나지 않고, ‘어머니’의 경우에도 한국은 35어에 이르는 반면, 일본은 2어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과서의 어휘에서 보이는 ‘가족중심’이라는 특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 양국의 1-2학년 국어교과서의 어휘에 나타난 의미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가장 유의차가 높은 항목을 통하여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물·가족·집단 중심이며, 충효를 중요시하는 사회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양국의 학생들의 어휘사용으로부터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경제관념·경쟁·노력과 보상이라는 가치관이 나타나 있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인물보다는 동·식물 등 자연물과 소재·도구를 중시하고, 시간적·공간적 인식을 정확하게 인식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여, 충효는 물론 경쟁이라는 사회적 가치덕목보다는 사회속에서의 기본 생활양식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를 통하여 양국 간의 차이는 물론, 국어교과서에는 사회상 및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이 들어있기 마련이며, 이는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교과서의 텍스트(본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일 양국의 교과서어휘를 항목별로 수치에

치중하여 분석하였지만, 해당 항목에 상이한 어휘가 많고, 선호 경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좀 더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어로서 상대 언어를 교육할 경우, 상대어의 어휘 선정에 대한 분석 및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양국의 교과서 어휘 간에 공통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의 목록 및 각각의 비중을 제시한다면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고예진(2012) 「애니 베어드(Annie Luaurie Baird)의 저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이해양상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3,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9-32
- 소강춘(2004) 「한국, 조선, 중국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특징에 대한 국어정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53 pp.181-206
- 宋正植 외(2012)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어휘 고찰-품사별 분석을 통하여-」 『일본어학연구』 34 한국 일본어학회 pp.89-105
- _____ (2013) 「한·일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어휘 고찰-품사별 사용빈도 상위어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36 한국일본어학회 pp.147-166
- 이원희(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 2학년 국정 도서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pp.143-150
- 李美淑 외(2012) 「한·일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교과서를 통해 본 양국의 사회·문화적 가치관 연구-교과서 정책 및 삽화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90 한국일본학회 pp.65-77
- 李美淑(2013)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가치관 연구-저·중·고학년의 변화에 주목하여-」 『일본학보』 95 한국일본학회 pp.31-45
- 이주섭(2009)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 의 주요 특징 고찰-1, 2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한국문화회 pp.117-139
- 정광순 외(2010)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분석」 『초등교육연구』 23한국초등교육학회 pp.23-43
- 趙喆鎬(1997) 『韓·日初等対校 対語教科書の 対照研究-1・2學年を 中心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집
- 石原千秋(2005) 『国語教科書 的思想』 ちくま新書 pp.33-57
- _____ (2009a) 『国語教科書の中の「日本」』 ちくま新書 pp.79-138
- _____ (2009b) 『読者はどこにいるのか-書物のなかのわたしたち-』 河出ブック pp.11-28
- 伊藤良徳他(1995) 『教科書の中の男女差別』 明石書店 pp.13-43
- 今井康夫(1990) 『アメリカ人と日本人』 創流出版 pp.25-34
- 李庸伯(2004) 「語彙の比較研究-小学校国語教科書を用いて-」 『比較語彙研究の試み12』 (田島毓堂編)語彙研究会 pp.1-124
- 国立国語研究所(1964) 『分類語彙表』 国立国語研究所資料集6 国立国語研究所
- 国立国語研究所(1985) 『語彙の研究と教育(下)』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3 大蔵省印刷局
- 島村直己(1983) 「小学校低学年用国語教科書の用語」 『研究報告集4』 国立国語研究所報告74
- 宋正植(2009) 「「中学校教科書」 語彙比較-意味分類別構造分析を通じて」 『日本語教育研究』 16, 韓国日語教育学会 pp.39-45

田島毓堂(1999) 『比較語彙研究序説』 笠間書院

二宮皓編(2010) 『こんなに違う! 世界の国語教科書』 メディアファクトリー-新書 pp.7-12 pp.31-46

日本教師会国語教育研究委員会(1981) 『小学校国語教科書の問題点』 日本教師会 pp.1-57

〈분석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국어 읽기』 1-1/1-2/2-1/2-2

宮地裕他(2011) 『国語』 1上/1下/2上/2下 光村図書(文部科学省検定済)

〈 要 旨 〉

韓·日小学校1-2年の国語教科書の語彙分布研究

-韓·日小学生の語彙比較を通じて-

本稿は、韓国と日本の小学校1-2年生の国語教科書「語彙」の意味分布の有意差を通じて両国の社会像と価値観の違いを明らかにし、最も有意差の高い項目に関連しては、該当国語教科書で学習した両国の小学校3年生の語彙使用調査を通して教科書の語彙との関連を検証するのに目的を置いた。

韓国の異なり語数と述べ語数はそれぞれ日本の1.33倍、1.49倍に達するほど、語彙量が多かった。両国の教科書語彙を分類語彙表により43個の項目に分け、調べた結果、13の項目で有意差が発生したが、韓国の教科書は、〈1.20われ・なれ・かれ〉を始め、〈1.25公私〉〈1.52宇宙・空〉〈1.37納得〉等、6つの項目で有意差が高く、日本の教科書は、〈1.56動物〉を始め、〈1.55生物〉〈1.17空間・場所〉等、7つの項目で有意差が高かった。

分析の結果、韓国は人間・自分・他人、国家・地域などを表す語彙が多く、人物、家族や民族を大事にし、集団意識が強く、忠・孝という価値観を大切にするイデオロギ-が強く反映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なお、小学生の語彙使用を調べるアンケートを通じて、教科書との関連性を確認した。なお、韓国教科書には経済観念、競争、努力と償い等の価値観が現れているのに対し、日本はそうではなかった。一方、日本は、人物よりは動・植物中心で、素材や道具を重視し、時間・空間的な事柄を正確に認識させようとする意図が窺え、特定の価値よりは社会のなかで守るべき基本生活を重視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本稿を通じて、両国間の違いはもちろん、国語の教科書には社会像とその時代が求める価値観が含まれており、これが学生達の価値観に影響を与えることが確認できた。

論文分野：語彙論

キーワード：小学校、国語教科書、分類語彙表、語彙分布、価値観

■ 이미숙 · 송정식 (李美淑 · 宋正植)

명지대학교 교수 ·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lms@mju.ac.kr · songjeongsik@naver.com

- 投稿日：2013년 12월 20일
- 審査開始：2014년 1월 7일
- 審査完了：2014년 2월 3일
- 掲載確定：2014년 2월 18일